

2010년 늘푸른대학 졸업식 축하 한국무용공연을 마치고



2010년 늘푸른대학 졸업식에 우리 한국무용부가 축하공연을 하였습니다. 한국무용부가 개강한지도 어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 동안 크고 작은 행사에 여러 번 봉사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무용부 성도님들의 꾸준한 열성과 정성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을 맺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참 잘하네" "정말 고와" 하시면서 즐거워 하시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봉사할 곳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 하겠다는 무용부 성도님들께 건강과 평화가 함께해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무용 강사 배숙자 집사>

의 마음과 또한 모든 장병들의 무사무탈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굳건한 믿을 안에서 기도하는 민족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녁엔 처음으로 주님의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사진으로나마 박원호 담임목사님을 잠시 만나 뵈었습니다.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많은 장병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교회와 박원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두서없는 짧은 편지글로서나마 감사의 맘을 전해드리며, 저도 주님의교회와 군,경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가족과 함께 방이동 소재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임마누엘교회 집사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우편물(엽서)과 얼마전에 책자도 잘 받았구요, 인사가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 종호가 11월에 일병 진급을 했구요, 가끔씩 전화 통화로 잘 지낸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대 막내라서 고생이 많을텐데요,, 힘든 아들을 위해서 진작에 주소를 보내드리지 못했습에 미안한 맘이 드는군요, 우편 많이 점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목사님과 수고해주시는 모든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주님의 크신 축복을 기원합니다.

샬롬! 잠실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이 군복무중인 김종호 어머니입니다. 먼저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군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장병들을 위로해 주시며, 처음 입소한 훈련소 신병교육대에서 진중세례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종호가 지난 2010.5.31일 포항 해병대 훈련소 입소해서 무사히 훈련을 잘 마치고 실무배치는 강화도 교동도 작은섬에서 군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23 연평도 북한 도발 사태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국가 안보와 군선교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뉴스에서, 서해 5도와 강화도 주변섬 말도, 교동도는 북한방계선 3km 바로 앞이지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며,,걱정하는 부모님들

남성찬양대 2010이웃초청 송년음악회



"2010 이웃초청 송년음악회"가 주님의 교회 남성찬양대 주관으로 가든파이프 아름다운 컨벤션센터에서 다문화가정,복지사역팀, 사랑나무등 200여명을 초청한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합줄함울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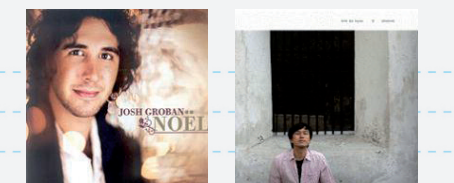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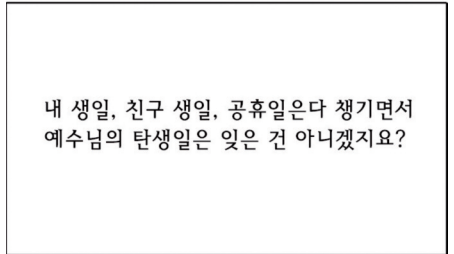
문의: 하태원 편집장 T.019.313.3073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성탄을 맞이하여...

허윤정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이 기간에 그 은혜의 깊이를 더하여 줄 두 장의 음반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팝페라 가수 Josh Groban(조시 그로반)의 <Noel>과 "성령이 오셨네"의 작곡가 김도현의 3집 <shalom>입니다. 팝과 클래식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풍부한 음악성을 지닌 그의 안정되고 신실한 음성을 통해 불려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 들 밤의 한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와 같은 성탄 찬송을 들으면 마음이 정결해지고 아기예수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가 되는 듯 느껴집니다. 그 외에 "생명의 양식" "아베 마리아"와 같은 성가와 더불어 몇 곡의 크리스마스 캐롤이 같이 들어 있는데 이 곡들마저도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반은 김도현의 3집 <shalom>입니다. 타이틀곡 "shalom"을 통해서는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마14:27)"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되던 그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절망의 돌베개를 하나님의 집기둥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베개"를 들으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음반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님계로 부터만 온다는 것이 더욱 감사한 대림절 기간입니다. 귀한 음반들을 통해 그 은혜와 감격 더 풍성하게 누리시길..

<박윤정 기자>

|오늘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_ 누가복음 2 : 14

통 권 제 276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0년 12월 19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_ 롬 12:5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눈물의 크리스마스

‘하늘도 울었고 땅도 울었습니다.’



울어 본 사람은 눈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압니다.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애통을, 그 오랜 기다림의 간절함을, 그 깊은 그리움을 말입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네 삶은 버려진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서럽고 아픈 시련이 이 땅 곳곳을 뒤덮고 있어도, 우리의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깊은 마음은 어느덧 우리의 눈물샘에 고여 차오르는 샘이 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늘의 깊은 사랑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그 하늘의 심장을 이 땅에 두셨기에 땅도 울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담아, 당신의 눈물을 담아 이 온 만물을 만드셨기에 땅도 울었습니다. 그 날을 기다렸던 거룩한 우리들, 신음하는 돌과 풀들, 태어나기를 준비하던 아기들, 모두 함께...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그날, 하늘도 울었고 땅도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찾은 어미의 심정으로, 그 어미 품을 파고드는 젖 뎌 아이의 심정으로 울었습니다. 헤어진 옷을 보았기에, 부르튼 발을 보았기에, 은혜에 감격했기에 울었습니다. 드디어 만났기에, 진정으로 만났기에, 그분이 정말 오셨기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부짖어 울었습니다. 숨죽이며 울었습니다.

이 감격의 눈물에 모든 만물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에 얼어붙은 땅이 녹았습니다. 일그러진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었습니다. 소망을 모르던 자들이 다시 꿈꾸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기쁨이 춤을 추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요, 찬송입니다.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목 놓아 불러도 다부를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 절망의 땅에, 이 완악한 심령에, 슬픔과 애통으로 얼룩진 이 땅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죄인들은 노래합니다.

바로 나의 노래, 당신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르고 불러도 다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올해도 성탄을 기다리는 한 목자는

홀로 하늘을 바라보지만

소중한 양들을 품에 안고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양들이 있기에

찬송을 쉬지 않는 목자가...

〈담임목사 박원호〉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



1. 체계적인 말씀사역
2. 선교 공동체로서의 소그룹활성화
3. 훈련을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4. 교회 지원과 개척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5. 목적에 따른 다양한 예배
6.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교육과 청소년 집중 사역
7. 통합적 환경 복지 사역

주간 목회력

- 12.19 (주일) VIP 초청주일
교육목회원 성탄발표회
성탄절 칸타타
20플러스 성탄콘서트
- 12.25 (토) 성탄예배 (오전 9:30 / 11:30)
유아세례예식 (오전 11:30)
- 12.31 (목) 송구영신예배 (오후 11시)

〈제1기 예수친구사역 훈련생 모집〉

*안내지 참조

〈4부예배 시간변경〉

2011.2.6(주일)부터 오후 2시로 변경

간증/성탄축시/성탄절 축하메세지	2 - 3면
7교구모임 / 늘푸른대학 종강	4면
소망의 집 / 케냐 자라니 합창단 외	5면
늘푸른대학 / '살롬! 잠실 주님의교회' 외	6면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간증

지난 10월 3일,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저의 모습을 안쓰러워하던 아내에게 끌려 주님의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교회에 간다는 일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시작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식욕부진, 불안과 우울감이 갈수록 심해져서 더 이상은 제 의지로 버틸 수 없게 되었고, 저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점차 강해져 살아가는 게 힘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는 아내의 권유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였습니다. 찬송을 불러가던 중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하는 부분에 갑자기 울컥 눈물이 솟더니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리에 엎드린 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통곡하고 난 후에 다시 지나간 삶에 대한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계속 통곡을 하던 중

마치 예수님께서 저의 면전에서 저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꾸짖는 음성처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새가족 양육을 마친 후, 교회 계단을 내려가는데 또 다시 갑작스런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제 곁에 오셔서 울며 함께 기도를 하시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니 온몸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감과 함께 허탈해졌습니다. 갑자기 담임목사님을 뵙고 싶은 생각에 면담을 신청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는 실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 온 몸과 마음이 깨끗이 정화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희망의 틈을 본 기분 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담임목사님과 잠깐 면담을 하였고, 새신자 등록도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중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와 닿았고, 간절한 저의 마음은 새벽마다 저의 몸을 이끌어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수요 성경공부에도 몇 차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은 마음도 가볍고,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도 참 편안해 보인다는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습관들로 인해 조금씩 죄를 짓는 제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죄를 짓는 저의 행동들에 너무나 불편한 감정이 가슴에 앙금처럼 남았습니다.

11월 첫 주부터는 새가족양육을 받았습니다. 셋째 주 나눔 시간에 양육리더 집사님께서 자신의 체험담을 얘기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성경을 펴고 마태복음 5장을 읽던 중 제 눈은 29절과 30절에 멈추었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마치 예수님께서 저의 면전에서

저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꾸짖는 음성처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새가족 양육을 마친 후, 교회 계단을 내려가는데 또 다시 갑작스런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볼까 고개를 돌려 유리벽에 고개를 숙인 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었습니다.

10월 3일, 주일의 사건 이후로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마음도 비교적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 아직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우울감이 조금 들기도 하며, 약간 불안한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가슴속에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들어 있어서 힘이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를 하면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건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의과대학을 진학할 때도 그랬고, 15년 전에 아내를 만날 때도 당시 교회를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드린 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의사로서 살아온 삶, 저는 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마음의 고통이 항상 마음의 성숙으로 이어져 왔듯이 현재의 마음의 고통 또한 저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 믿습니다. 또한 잘 견디고 성장하면 미래에 저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리라는 것도 믿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하프타임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훌륭한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간구합니다. 10월 3일, 제가 대성통곡할 때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 열정으로 삶을 나눠 주셨던 양육리더 집사님, 그리고 매 주일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2교구 정현석>

■ 성탄 축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당신과 나 사이엔 건너갈수 없는 길 하나 있어
그길 사이에 두고 이쯤에서 다만 서로 바라보고 그리워 할 뿐이다.
당신이 그리도 짝사랑 하시던 죄가 많아 더러운 이땅.
빛이 없어 어둠뿐이던 이 세상.
숨 쉴수 있는 심장이 없어 마른 호흡으로 질식할 듯한 이 가슴에
당신은 한가득 향기담으신채 이 땅에 오셨다
높고 영화로운 이름
말구유에 버리신채 안개처럼 흩어진 어두운 세상
한줄기 빛 되어 단번에 밝히신 놀라운 당신의 능력
이제 내게 남은 일 하나.
이 마음에 떨어진 꽃씨 하나 키우는 일이다
이 가슴에 꽃힌 별빛 하나 밝히려는 일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뛰는 가슴으로 그의 향기 온 땅에 피어나게 하는 일이다.



예수, 임마누엘로 오시다

저 멀고 높은 곳에서 세상을 사랑하사 천지를 만드신
말씀하나 살아 계셨지
늘 내려 보시던 근심스런 하늘 밑 세상
눈물젖은 오랜 기다림 끝에 밤마저 모두 잠이 들어버린 밤
세상을 밝힐 빛 하나
동방박사 인도하던 별빛 따라 간 길.

베들레헴
그 말씀 사람이 되어 말 구유에 누우셨네
복되도다 그대, 임마누엘 잉태한 여인이여
나신이가 온 세상 다스리실 임금으로 오셨네
모든 죄를 대속하실 구원주로 오셨네
하늘이여....!
별들아 빛을 발하라, 태양아 타올라라
땅이여.....!
파도아 뛰여라, 풀들아 일어나라
만민이여....!
여인이여 눈물을 멈추어라, 소년이여 파리를 불러라

그의 오심을 기뻐 할지라
그의 오심을 노래 할지라
손뼉치며 즐거워 할지라
주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주 예수 태어나심을



<1교구 26구역 한상숙>



성탄절에 드리는 축하메시지

성탄절에 드리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베들레헴 낮은 말구유에 나심으로
가난한자, 병든자,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입 그리고 귀를 열어주시어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어 주시며
절망하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우리를 얹메이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아직도 암흑과 기아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임하셔서
통일의 그날이 어서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하여 온나라와 백성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온세상에 퍼져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임주청 장로〉



나의 나 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한다고 온 세계가 가슴 설레며 맞이한 2000년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10년의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천안함 사건, 유난히 무덥고 폭우가 많았던 여름, 연평도 포격사건 등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뒤로 하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
합니다.

주님께서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힘이 넘칠 때나 힘들고 지칠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한결같이 저희 곁에 함께 하시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
며 함께 마음 아파 하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
기도 애써 외면하기도하였사온데 이러한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을 내어 놓고 회
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나 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
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용서하며 좀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며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주만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즐거운 성탄과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완중 장로〉



복음의 씨앗 백년에 맞아 성령의 단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며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도 모르게 함께 부르는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35년 전에 알게 되었고 저의 구주가 되시어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
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외면하지만 저
는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로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부러움 없는 저입니다.
아마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저를 주장하시기에 변화시켜 오셨다고 생각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욕심 많았으며 교만하였으며 부귀와 영화와
같은 헛된 것을 추구하기도 했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시기와 욕심을 드러내며 남
이 잘 되는 것이 싫고, 잘난 체 하는 등 정말 바보 중 바보짓도 했습니다. 그러나,
1977년 어느날 여름에 예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시어 구원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미래도 저의 생명은 예수님이 주장하실 것이며 시키시는 대로 의 직
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요 죄 가운데 살고 있어 육신의 가시는 계속
떨리나 예수님이 막아주시므로 이보다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모두 축하드리는 가운데 2010년을 마무리하고 우리나라 복음
의 씨앗 100여년에 맞아하여 이 씨앗을 더욱 잘 키우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
하며, 새 사람으로 사역하고 동역하기를 주님의 모든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신정웅 장로〉



어릴 때 기다리는 것은 오직 선물인데 노년에 기다리는 것은 오직 복음이 온세상 전해지기입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닦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하루 하루 손꼽아
가다리는 어린이이시절을 생각하여 봅니다. 그 당시 기다리는 것은 오직 산타할아
버지의 선물이었는데 지금 내가 기다리는 성탄절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동안 받은 많은 선물을 다른이에게 전하는 것이 노년을 맞는 나의 할 일이
라 생각 되어 집니다. 무슨 선물을 하여야 할까 많은 생각중에 4년전 나에게 맡게
진 사역이 선교사역담당 장로의 직분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 캄보
디아, 베트남, 북한, 국내 농어촌 등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최선이
라 생각하여 열심히 사역하였습니다.

정말로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겨자씨
헌금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보
람된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믿겨지지 않는 일은 어떻게 월남 공산주의 간부들이 교회설립을 허락하
며 그들로 하여금 성경공부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우리 교회에 할 수 있을까 생
각할 때 북한의 복음전파도 바로 이루어 지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모두 힘을 모아 온 세상에 복음전파에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의 기도
가 아기에수 오심을 통해 더욱 뜨거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조원호 장로〉





7교구 전체 모임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심어 주신 작은 겨자씨들이 세상에서는 맛 볼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의 영양분을 고루 섭취하여, 튼튼한 겨자나무로 자라



7교구 겨자씨 전체 모임이 지난 12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1층 소예배실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로운 모임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심어 주신 작은 겨자씨들이 세상에서는 맛 볼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의 영양분을 고루 섭취하여, 튼튼한 겨자나무로 자라 많은 가지들을 내고, 탐스럽게 영글은 크고 작은 열매들을 가장 예쁜 마음의 바구니에 정성껏 곱게 담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픈 마음과 주 안에서 사귀는 설렘으로, 밝은 미소를 함박 머금고 충충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는지요.

목사님을 비롯하여 영상담당, 식사담당, 찬양담당, 프로그램담당, 사진담당, 안내 등 모임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한 섬김과 헌신의 손길 덕분에 맛나는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교제를 시작으로 모임의 장을 펼쳤다. 중예배에서의 본격적인 모임인 프로그램의 문이 찬양과 함께 열리며 한 해 동안 7교구를 위하여 수고하신 섬김이들과 각 겨자씨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과 모든 겨자씨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시간은 서로서로 향한 깊은 감사와 사랑이 가슴을 차고 흘러 넘쳐 눈시울이 붉어지는 감격의 시간이었다.

요한복음 4장 14장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come”이라는 주제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신 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목사의 설교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라 더욱 은혜가 배가 되었다.

다섯 번씩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으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 누가 볼까 두려워 물 길은 것조차 남들의 시선을 피해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숨겨진 아픔과 슬픔으로 인하여 영육이 고갈된 가련하고 비천한 여인의 처지를 이미 다 아시고 먼저 찾아 오셔서 스스로는 도저히 영육의 목마름을 풀 길 없어 포기한 소망 없는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부어 주시며 그녀로 하여금 이방인의 전도사가 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수님. 그 어떤 한 생명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생명 구원자이시며, 참된 위로자이시며, 인간영혼을 소생 시키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며, 각자 고민하고 아파하며 놓지 못하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모두 내려놓으며,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에게처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먼저 찾아 오셔서 잔이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 주시는 생수의 강에 온 몸 담그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산 소망의 생명수로 가득 채우는 뜨거운 감격함이어라.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친히 구주되어 주시는 예수를 평생토록 사랑하리라. 주 안에 감추인 보배를 하나하나 캐내어 가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역할을 주저 없이 감당하리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이처럼 결단하는 은총의 시간이었다. 뒤이은 순서로 빠듯한 일상들임에도 열심히 준비하신 발표회 시간은 조금은 수줍은 듯 순수하고 맑은 모습이 어린 시절 학예회의 감회를 맛보기에 충분히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참으로 감사하기는 올 초부터 진행된 “성경읽기 대 행진”의 결실로 성경완필 자 3명, 성경완독 자 36명, 성경완타 자 6명으로서 성령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이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연약한 영혼들의 간절함에 주께서 응답하신 선한 열매이기에 더욱 귀하게 여겨지며, 평생 하나님 사랑함과 이웃사랑함의 두 기둥이 견고하게 서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된 십자가 선물을 드렸다. 내년에는 모든 겨자씨들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므로 사소한 일상 속에서조차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영성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날로 새롭게 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오직 예수만 알기를 다짐하며, 모든 겨자씨를 향한 목사님의 축도를 끝으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휘감아 주신 7교구 겨자씨들의 2시간여 진행된 행복한 시간은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막을 내렸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회복하실 참 빛으로 오실 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더욱 정결하고 순결하며 흠 없는 고결함으로 준비하여, 하늘에는 영광 땅 위에는 기쁨이 되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겨자씨 인도자 김향순 권사〉

늘푸른대학 2학기 종강을 마치고



오늘은 아침부터 중강당 주변에 사뭇 활기가 넘친다. 특별활동 반별로 복장을 통일하는가하면 발표할 내용인지 여행연습에 열중인 팀들도 보이고 중강당 로비에는 먹음직스런 점심메뉴가 하나씩 예쁜 그릇에 담겨 차려져 있고 준비하는 봉사팀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인다. 모두가 오늘 늘푸른대학 수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금년 3월 9일에 1학기를 개강해서 오늘 2학기 종강까지 30주의 학사 일정이 끝나는 날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선교와 평생교육차원에서 시작한 주님의 교회 늘푸른대학은 올해 2년차를 맞아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와 특강, 9개 반의 특별활동 반 운영을 통하여 날로 그 재미와 보람이 쌓여가고 있는 중이다. 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일정이지만 매주 거르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텐데 132분이 등록하여 120분이 수료하고 개근하신 분만도 30분에 이른 다.

이렇게 1년 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오늘 한껏 뽐내보는 날이다. 성경읽기 퍼포먼스로, 하모니카 연주로, 스포츠 댄스로, 찬양연주로, 생활체조와 탁구반 시범으로.... 그리고 붓글씨, 원예작품, 사진작품은 전시로.... 한 해 동안 탐과 정성이 배인 작품들이다. 발표하는 어르신도 바라보는 스태프들도 벅찬 감동이 전해온다. 노인의 4대 고통 중의 하나라는 고독과 소외... 늘푸른대학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특히 이번 학기 특별활동 중에 잊지 못할 일종의 하나는 성경필사와 머그컵 사용 운동이다. 여름방학 중에 과제로 지정했던 창세기 필사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완성본은 예쁘게 제본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보로 보관하게 되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는 취지로 벌인 머그컵 사용 운동은 출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늘푸른대학 전 학생 어르신들이 가지고 다니며 애용하고 계신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어르신들,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주시는 특강 선생님들, 특별활동 반 강사님들, 40여명에 이르는 스태프, 자원봉사로 헌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다. 이제 주님의 교회 늘푸른대학은 지난 2년여의 운영 경험을 살려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생활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산뜻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도 우리 지역의 이웃분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고 더 환영할 것이다. 내년 학기에는 더 많은 늘푸른대학 학생들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내년 3월 8일에 뵈겠습니다.

〈늘푸른대학 교무처장 박동수 안수집사〉



여러분의 사랑이 지붕이 되어 비가 새지 아니하는 밤을 지낸 기분입니다.

_ 지붕이 없네요..... (소망의 집 이야기)



장애인 시설
소망의 집을
운영하며 아
픔이 이렇게
고통을 느끼
는 일인줄 몰
랐습니다 단
순히 장애인
들은 말이 어
눌하고 행동
이 부자연스
러운 너무나
신기하고 재
미로만 봐 왔
던 아픔의 현

실은 세상의 병이 이렇게도 깊은 사람들이 있을까?

일본일초도 가만히 앉아 있음이 없고 밥을 한 양푼이를 먹
고도 돌아서면 부엌에 천 번은 들어가는 아이, 수없이 피부
를 물어뜯는 일, 용변을 손이 닿는 곳에는 어디든지 바르는
일, 수없이 옷을 찢는 일, 벽이 머리를 터질 정도로 밤인지
낮인지 잠을 안자고 우는 일, 발작.....

이러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병으로 통하여 준비하시고 일
을 하게 하시어 아픈 아이들을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신 하
나님의 섭리에 하늘의 위로가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프로
그램에서 당연하게 너무 힘들구나 힘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월 구십만원을 보
조를 받으며 간호사 조리사 복지사 몇명에 여러 구비조건
을 갖추어야 되는 엄청난 기업을 경영하는 듯한 현실의 무
거움 속에 본래의 직업인 면양팔과 스타킹등 발에 관한 물
건들을 수없이 길에서 이불을 두 장을 갈바닥에 깔고 노점
단속을 수없이 당하면서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데.....

귀하신 목사님사랑으로 말로만이 아닌 정말 예쁜 여자집
사님들로 구성된 주님의 교회 6여전도회 회원여러분의 십
수년의 동역으로 365일하는 목욕을 말씀없이 섬겨주시는
일이며 박오호집사님 김동익집사님통하여 아이들의 외삼
촌이 되어 주시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나 수없이 사랑으
로 채워 주시는 귀한 사랑에 감동하며 아이들이 말은 못하
지만 아이들이 나름대로 사랑으로 섬김을 받고 있어요라는
무언의 대화를 느끼며 이들과 한공간에서 이십년째 생활하
고 있습니다.

길에서 양말을 팔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오라는 곳 판매할
수 있는 확실한 장소 없이 이동네 저동네 한바퀴 돌다가 쭉
빚히여 하는 수 없이 집에 돌아가는 일이 많은데 이번에 주
님의교회 사랑돕기바자회에 조건없이 양말을 판매
하라는 엄청난 하늘의 위로로 제일 좋은 자리에서 쫓겨 다
니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양말을 땅에 이불퍼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위에서 팔게 하신 그 엄청난 사랑. 참 감사
합니다. 지붕이 뚫린 비가 새는 집에서 양푼으로 물을 받는
마음의 생활인데 주님의교회 목사님 이하 성도여러분의 사
랑이 지붕이 되어 비가 새지 아니하는 밤을 지낸 기분입니다.
아비없는 자식같은 눈을 뜨면 밀려오는 재정 부담.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요원했으
며, '원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좋은 일하십니다'의 댓가
는 눈물없이 갈 수 없는 복지의 현실속에 이번 주님의 교회

박원호목사님의 배려는

말씀은 안하시지만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때리지
말고 사랑으로 아이들 잘 섬겨라 하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사람을 다시 한번 새워주심에 살 힘을 얻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목사님이하 성도여러분 하시는 사역이 더 형통
하시어 슬픈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살리시는 세
계적인주님의 교회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소망의 집 박현숙>

케냐 지라니 합창단 공연을 듣고



내겐 새로운 모든 것이 더 신비롭지만 가끔은 낡고 오래
되고 익숙한 음악에서 더 정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
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아직 눈이 내리지 않아 숲이 하얀
색은 아니라서 달랠가고픈 마음 없지만 오늘은 흐린 하늘
을 보며 기도해봅니다. 눈이 내려달라고요.

12월 4일 토요일 케냐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보았
습니다. 멈출 수 없는 희망의 노래들을 들었습니다. 예쁜
어린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공연을 보며 사람과 친구에 대
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빈민가에서 음악
을 가지고 추운 겨울 우리나라를 찾은 예쁜 친구들.

세계 최대 슬럼가라는 케냐 고르고초에서 태어난 아이들
의 희망의 메시지인 음악을 가르쳐 하나님을 알게 한 많은
은혜들 우리나라 선교사들 손에서 이루어졌다 하지요.

어렵고 힘든 세파 속에서 이 자리에 축복한 윤희유처럼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재치로 때로는 애교로 때로는 깊은
은혜로 우리의 착하고 귀여운 예쁜 친구들 이제는 우리들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날 귀한 예쁜 친구들을 느낍니다. 마
치 정령처럼 환상처럼 떠오르겠조. 그들을 통해 사랑의 뿌
리를 느껴봅니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험
레벌떡 그렇게 살아가는 짧은 인생들 가운데 오늘 공연한
그 아이들 모두 하나 하나의 예쁜 꽃들입니다.

꽃들에게 우리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들의 희망이고 우리들의 그리움이고 우리들의 기다림
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 그 것이 희망이라고 합
니다.

천사들의 합창 그 화음으로 하여 더욱 아름다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그들의 미성과
천진난만한 미소처럼 돌아가서 그들의 희망이 이루어질
기원합니다.

아이들의 검은눈 속에 희망의 메세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
모습들, 꼭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하늘이 주신 가장 아
름다운 선을 인간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서 우리는 찬양합
니다. 그들로 인해 삶이 풍요로워지는 많은 이들이 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공연 중 가수 성시경과 함께 'I have a dream' 을 같이 부
를 때 정말 그들은 꿈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기적들

만드는 찬양 그들에게는 꿈이 있고 그들은 부를 노래가 있
어 행복하다지요. 화음으로 나오는 작은 소리 케냐의 정열
들 사람의 목소리 보다 더 아름다운 악기들은 없다 하지만
조그마한 그 아이들 진정 그들은 꽃이었습니다.

합창을 들으며 그 어떤 아름다운 언어로도 그 감동을 표
현하기 힘이 듭니다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하나님의 살
아계심을, 아이들의 표정과 음성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을 소름끼치도록 느꼈습니다.

배고픔도 모르면서 행복에 겨워 불만 불평투성이던 나
를 뒤돌아보게 하는 아니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감사하게 살아야지. 가난과 굶주림만 없다면 어쩌면
가식없이 자기마음 그대로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우리보다 행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행복하고
즐거우면 함께 소리지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큰소리로 웃
고,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착한 사람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솔직한 사람들 부디 남은 순회공연 성황
리에 잘 마치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 모두가 느낀 감동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신형섭 안수집사>

차량부 안내광고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 사이에는 많은 차량들이 나가
고 들어 옵니다. 특히 3부 예배 시작 15분전(11시 15분)부터
3부 예배에 참석 하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진입해 교회내
에서 차량 흐름이 잠시라도 멈추면 교회 주변 도로가 대단
히 혼잡해 집니다. 이로인해 간혹 삼성역사거리까지 차량
이 길게 정체가 이어지며 우성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부 예배 후 귀가 하시는 성도님들
께서는 3부 예배 시작 15분 전(11시 15분)에 출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혼잡한 시간대에 정문에서 많은 차들이 좌회전을 하
므로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혼잡한 시간대에 출차 하시
는 분들께서 정문에서 우회전하시면 보다 원활한 차량 소
통이 이루어 집니다.

교회 진입 시 방향등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정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교회 진입하는 차량간의
구분이 안되어 교회 앞을 통과하는 외부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진입하시는분들께서는 교회
방향 지시등을 꼭 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